

사내 소식

'2013년 하반기 인센티브 시상식' 개최



2월 10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 하반기 인센티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인센티브 대상작은 총 9편으로 <정글의 법칙>(연출 변진선, 박미연),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연출 조효진, 임형택, 김주형), <TV 동물농장>(연출 이택진), 파워FM <두 시 탈출 캠프쇼>(연출 오지영, 강태우), 파워FM<김창렬의 올드 스쿨>(연출 김홍준), 파워FM<박소현의 러브 게임>(연출 김찬웅), 파워FM<박은지의 파워 FM>(연출 박형주, 이세훈), 러브FM<유영재의 가요쇼>(정태익CP), 뮤지컬 <그날들>(문화사업팀 성기훈)이 수상하였다.

SBS SDF사무국-(사)앱센터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식' 개최



편성전략본부 SDF사무국은 2월 4일(화) 오후 3시 30분에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사단법인 앱센터(이하 앱센터)와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SDF사무국과 앱센터는 오는 5월 21일(수)부터 이틀간 열리는 서울디지털포럼(SDF)에서 구체적인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앱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120여명을 초청해 디지털 시대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앱센터와 SBS문화재단이 공동주최가 될 이 경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SDF사무국과 앱센터는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선거방송 워크숍 실시

보도본부 선거방송기획팀은 6월 4일(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방송기획팀과 유관부서 경직자들을 대상으로 2월 5일(수)~6일(목) 1박 2일 동안 인천광역시 인천교직원수련원에서 선거방송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SBS 선거방송의 콘셉트와 전략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파트 별로 나누어서 관련 아이디어 회의와 토론을 하였다.

2014년 임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

경영지원본부 노사협력팀은 작년부터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6일(목) 특강을 개최하였다.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컨퍼런스룸2에서 실시한 이번 특강은 '한겨레심리상담센터' 강숙정 소장이 강사로 초청되어 '대인관계를 위한 자기성격분석'을 주제로, 50문항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기 성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대인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4년 '임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2월 11일(화)~12월 31일(수)까지 실시한다. 상담기관은 '극동상담심리연구원'(장성숙 소장)과 '한겨레심리상담센터'이며, 상담비용은 전액 회사에서 지원한다.

그룹 소식

SBS스포츠-골프 아나운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SBS스포츠-골프 아나운서는 2월 6일(목)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컨퍼런스홀에서 모든 아나운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2014년 스포츠-골프 아나운서의 주요 추진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스포츠-골프 아나운서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연이력 지도 강사를 초청해 방송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사우기고 | 기획실 정책팀 이상진 차장대우

2014 CES가 보여준 콘텐츠의 힘과 미래 기술 동향

이번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가전박람회)의 화두는 단연 4K UHD TV였다. 전시장을 다양한 크기의 4K TV로 도배한 한·중·일 가전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장내는 열기로 뜨거웠고, 특히 무려 140대의 4K UHD/3D TV를 이어 붙여 초고화질의 3D 영상을 보여준 LG전자편은 일부러 많은 사람들로 인해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고 올해 첫 선을 보인 110인치 크기의 곡면(Curved, Flexible, Bendable) UHD TV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큼 매력적이었으며, 화질도 실물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매우 사실적인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4K TV를 결속에서 올해 CES의 최고 승자는 가전업체 중 하나가 아니라, 이더러니하게도 'Netflix'라는 4K콘텐츠 제공 업체였다. 전시기간 내내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은 가전사의 제품과 관련된 소개 기사보다는 'Netflix'가 어느 가전사와 협력체결(team up)을 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실제로 가전사들 대부분의 UHD TV는 'Netflix'가 만든 4K 드라마인 'House of Cards 2'를 앞다투어 시연하였고, 저마다 경쟁적으로 자사 TV에서 더 많은 UHD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 결국은 4K 기술의 시적은 가전사가 보여줬지만, 승부를 가를만한 것은 콘텐츠 출력이었다. 즉, 이번 가전 전시회에서 보여준 것은 다른 아닌 바로 '콘텐츠의 힘'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래 기술동향으로는 관심 있게 들었던 컨퍼런스 내용을 종합하여 두 가지 미래의 새로운 화두를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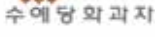


LG전자의 4K UHD/3D TV 140인치 곡면이 만든 4K/3D wall

첫째가 '3rd Screen'이다. 가정 내 TV와 같은 1st 스크린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고, 현재 많은 기업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2nd 스크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매달려 있는 상황이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는 3rd 스크린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3rd 스크린은 인경, 시계 등과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화면과, 'IOE'(만물 인터넷) 기술과 결합된 스마트 자동차에 탑재되는 다양한 스크린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노력이 시작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tory telling'**이다. 현재의 트렌드는 기술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는 기술들은 안타깝게도 규방 외면당하여 그 생존기간이 극히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CES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곡면/가변형 UHD TV는 사용자가 왜 이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로 인해 다른 평범한 중국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진정한 미래의 기술은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창출하는 기술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반드시 여기엔 경험하고 싶은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하고, 어떤 스토리를 담을 것인지 기술을 선보이기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스토리'는 이미 우리 콘텐츠에 담겨있다. 하지만 아직은 콘텐츠 자체에 담긴 영상을 통한 이야기만이 전부이다. 미래에는 우리 콘텐츠가 혁신적인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내는 'story telling'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1st 스크린의 약세가 심화될수록 지상파 방송사의 '취기가 다가오겠지만, 반대로 2nd, 3rd 스크린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반드시 올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된 출장이었다.

6면은 사우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간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미담, 기교, 사연을 담은 사진, 사보에 대한 의견 등을 사보 담당자(PR팀 서희정)에게 제보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동호회 탐방 | 아이스하키 동호회

“빙상을 가르느 격렬한 즐거움, 한파도 잊게 하죠”

SBS 아이스하키 동호회 '포커스(FOCUS)'입니다. 하키는 보통 팀으로 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소개하자면 '포커스 팀'이지요.

3년 전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얼음얼음 모여 시작한 '포커스'가 지난 해 정식으로 동호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저희 동호회는 대부분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회원들이 아이스하키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맘 홀리고 뛰면서 끈끈한 가족애를 더욱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는 말 그대로 빙구(氷球), 즉 얼음판 위에서 하는 공놀이입니다. 일단 나름 있어 보이는 보호 장비를 입고 헬멧을 씩니다. 그리고 '팩'이라고 부르는 두께 2.54센티미터, 지름 7.62센티미터인 검은 원반을 '스틱'이라는 나무 막대로 톡 톡 쳐서 상대편 골대에 넣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중입니다.^^ 아이스하키라는 게 얼음판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목동 아이스링크를 빌려서 잘 생긴 하키 코치에게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많을 때는 스무 명도 훌쩍 넘기지만, 급박한 사건이 터졌다거나 할 때는 넓은 링크를 서너 명의 열기로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스하키가 격렬한 스포츠의 대명사인 탓에 건강하고 멋진 청년들만 있을 것 같지만, 배불뚝이 아저씨부터 아기 엄마까지 갑갑을녀, 장삼이사가 대부분입니다. 아, 훈련만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수도권 지역의 다른 아이스하키 동호회와 주기적으로 친선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열리는 아시아리그 시합을 보러 단체 관람을 가는 건 보너스라고 할 수 있죠.

회원들마다 추억에 남는 일은 다를 겁니다. 누구는 처음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판 위에 서서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기를 반복한 끝에 시합에서 첫 골을 넣은 순간이 가장 인상적일 거고요. 다른 누구는 결혼기념일에 맘 홀려 운동한 후 다치 살 딸이 얼음위로 가져온 케이크의 촛불을 끄던 순간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날 큰 점수 차로 지기만 하던 팀을 이겼던 날이나, 운동이 끝나고 다 함께 모여 국수를 먹고 맥주를 마시는 일이 가장 즐겁다는 회원도 있지요.

더 열심히 실력을 키워서 수도권 최고의 아이스하키 동호회가 되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대신 저희 동호회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링크 장이 없는 지역, 스케이트를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함께 아이스하키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또한 회원 분들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2대 3대가 함께 링크장에서 뉴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오랫동안 이어졌으면 합니다. 회원 모두가 휴가를 내긴 어렵겠지만,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다는 NHL 경기를 보러 가는 것도 바라고 있습니다. ㅋㅋ

회장 : SBS 뉴스텍 영상취재팀 태성식 팀장
총무 : SBS 뉴스텍 영상취재팀 신동환



SBS사보가 999호를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발행되는 '사보 1000호' 특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1. 1000호 발행을 맞아, SBS사보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사보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2. 사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1) 사보 기사 중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 2) 사보에서 다루주었으면 하는 내용과 기타 사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3)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보를 접할 수 있는 배포 방식을 제안해주세요.
3. 1000호 발행 축하메시지도 접수합니다. 메시지는 글이나 사진 모두 가능합니다.

마감은 2월 21일(금)까지이며, PR팀 사보담당자서희정에게 사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NEW BOOK
이외수 김태원의 청춘을 위하여

이외수 김태원이 보내는 청춘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 '이외수 김태원의 청춘을 위하여'는 <SBS스페셜> 제작팀이 청춘을 위로하기 위한 다큐멘터리로 선보인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힐링'으로 마음을 다스리지는 취지에 더해, 김태원과 이외수가 최고의 뮤지션과 작가가 아닌 그저 청춘을 먼저 보내온 인생 선배로서 가슴을 열고 토로했던 이야기들을 정성껏 담았다. 특히 '특별해지라'라는 강요보다는 '당당하면 된다'고 전하며, 여전히 불안하고 아픈 청춘들에게 괜찮다고, 인생에 당당하면 된다고 용기를 준다.

김병만의 정글의법칙 '캐리비안 편'

어린이 만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은 방송 원작의 스릴, 감동, 재미를 살려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모험과 도전정신을 높인다. 안방으로 전해지는 생생한 대자연의 모습에 감동 받고, 예고 없이 불쑥불쑥 막닥뜨리는 정글의 위험에 머리가 쭈뼛주뻗 서고, 병만 족장과 스타들의 좌충우돌 생존 사투기에 배꼽 잡고 웃게 된다.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캐리비안' 편에서 느꼈던 스릴, 감동, 재미를 만화책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 경조사 소식 |
☞ 축하합니다 보도본부 경제부 한상우 기자 결혼(2월 8일)

사보 998호 상품 수령인 명단
★ 사보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예당 화과자 —— (사우 기교) 제작본부 아나운서팀 김소현 차장
경영지원본부 편집기술팀 남야영



제999호 | 2014년 2월 13일(목) | 발행 SBS 편집 PR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전화 02)2113-3304 팩스 02)2113-3299 | @SBSNOW

2014 SBS 소치, 올림픽 방송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SBS올림픽방송단 김유석 단장 인터뷰



SBS올림픽방송단의 김유석 올림픽 방송단장은 "20년 동안 동계종목을 단독 중계했던 경험과 밴쿠버 올림픽을 단독 중계한 자신감,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서 시청자에게 호평을 받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스토리와 정보, 재미와 감동이 살아 있는 올림픽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다."며 강한 자부심을 나타냈고, "이번 올림픽은 기존의 동계 올림픽과 달리 평창까지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진초전이라고 생각한다. SBS 올림픽 방송의 캐치프레이즈도 '열정의 소치 꿈꾸는 평창'이다. 동계 올림픽 중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포그래픽스(INFOGRA PHICS)'라는 첨단 CG 기법 및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계 올림픽 중목과 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청자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런 점에서 SBS 올림픽 방송이 타사보다 신뢰감을 높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중계를 이어갈 것임을 자신했다.

배기완-방상아 콤비, 경험과 전문성이 빛난 해설



SBS의 피겨 스케이팅 배기완 캐스터와 방상아 해설위원의 품격 있는 해설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빛났다.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 남자 쇼트 경기를 중계하면서, 시청자의 물음을 방해하지 않고 경기 흐름을 짚어주는 노련하고 안정적인 진행으로 '피겨 중계는 역시 SBS'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김관규 해설위원, 명쾌한 분석과 따뜻한 시선



SBS의 스피드 스케이팅 해설위원인 김관규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스피드 경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물론, 선수들의 작은 실수까지도 잡아내는 정확한 시선으로 명쾌하면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해설로 시청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SBS 올림픽 방송, 이것이 다르다!

'SBS 소치 동계올림픽 방송단' 이 차별화된 올림픽방송 기술을 공개했다. SBS 올림픽 방송단 본진에 앞서 입국한 '방송단 PMO' 는 SBS 올림픽 방송의 차별화된 세 가지 방송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



첫 번째로 서울에서 보내는 리턴신호를 해설자와 캐스터가 볼 수 있도록 만든 점이다. 소치 올림픽에서는 중계석의 해설자와 캐스터가 한국에서 보는 화면과 똑같은 컴퓨터 그래픽이 적용된 화면을 볼 수 있어 시청자가 보는 화면과 시차를 좁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SBS 올림픽 방송단은 소치 IBC 내 MCR에 약 2,300시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소치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들어오는 모든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어, NLE 장비를 통해 많은 PD가 쉽고 빠르게 다양한 소치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경기장 내에 해설자 캐스터가 위치한 해설자 석의 콤팩트 활용, 네티즌이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SBS의 명쾌하고 유쾌한 해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시청자가 보다 현장감 있는 중계방송을 경험할 수 있다. 차별화된 방송기술과 그 기술로 제작된 콘텐츠는 시청자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대표적인 예로 2월 8일(토) '스피드 5000m 남' 종목 중계 방송한 <SBS 소치 2014>는 15.1%(닐슨 코리아, 수도권 기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이승훈 선수 경기는 밤 11시 경(한국시간) 순간 시청률이 29.9%까지 치솟았다.

올림픽의 열기를 더욱 생생하고 가깝게 즐긴다!

SBS <여기는 소치> LTE 생중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가 러시아 소치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방송사들도 속속들이 소치에 입성,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방송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중 SBS <여기는 소치>는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물론, 뒷이야기, 그리고 세계인들이 한테 어우러진 응원현장 등 소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풍경을 보다 빨리, 보다 생생하게 전하고자 LTE 생중계 방송에 나서고 있다.

<모닝와이드>에서 2012년부터 세계 최초 LTE 생중계 시작

높은 기술력으로 뉴스보다 빠른 중계 가능

LTE 생중계는 IT강국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SBS <모닝와이드>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이자 세계 최초로 LTE 생중계를 시작했다. 처음 LTE 생중계를 시작할 때 방송이 끊길 경우 부담이 커서 주변의 우려가 많았으나, 비약적인 LTE 기술발전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LTE 생중계가 완벽한 수준이다. 그래서 제작년 대선방송 또한 LTE로 연결하여 빠르면 선거결과를 안방에 전달할 바 있다.

각국의 뜨거운 취재 경쟁 속에 빠르고 역동적인 생중계로 각광

2014 소치올림픽 특집 <여기는 소치> 팀에서는 보다 빠르고 역동적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모닝와이드>와 <생방송투데이>를 통해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과 개막식 주 총 3주 동안 소치올림픽 소식을 LTE 생중계로 전달하고 있다.

2014 소치 올림픽은 88개 나라 29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올림픽인 만큼 취재경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이런 치열한 취재열기 속에서 보다 나은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여기는 소치> 제작진이 지난 9월 소치를 방문하여, 약 6개월간 LTE 망을 구축하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현재는 HD급 화질에 속도감 있는 LTE 생중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김연아 이상화 모태민 선수 등의 활약이 기대되는 빙상 경기장 부근, 올림픽 열기로 물든 소치시내 광장과 흑해 주변, 그리고 소치 시내에서 30여 km 떨어진 험한 산악지대로 유명한 크르나시야 폴라나 산악 경기장에서도 끊김이나 지연 없이 올림픽 열기를 그대로 전달 수 있게 되었다.

올림픽 소식과 현지의 풍경까지 고화질 영상으로 즐길 수 있어

이렇게 높은 기술력으로 <여기는 소치>에서는 뉴스보다 빠른 소식으로 경기 후 선수들과의 토크쇼,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뿐 아니라, 선수들과 가족들이 함께 소치 관광에 나선 모습까지 LTE생중계를 하고 있다. 또한 올림픽 소식뿐 아니라, 아름다운 휴양도시인 소치의 멋진 풍경까지 HD 고화질 영상으로 전하는 등 <여기는 소치>는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올림픽 방송을 선사하고 있다. <여기는 소치>는 2014 소치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모닝와이드>와 <토요 모닝와이드>, <생방송 투데이>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소치 올림픽의 재미, 다양하게 즐긴다



SBS,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단 선전 기원 거리 응원 이벤트

SBS는 지난 2월 10일(월)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대학로에서 거리 응원 이벤트를 펼쳐 화제가 되었다. 대학생과 어린이들로 구성된 응원단의 응원으로 시작된 행사는 스탠딩 스카이뷰와 워킹 스카이뷰로 올림픽 중계에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고, SBS '2013 연기대상'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트위터 미러도 등장하여 올림픽 응원 열기를 고조시켰다. SBS의 거리 응원 이벤트는 <생방송 투데이>에 LTE로 방송되었고, 2월 11일(화) <모닝와이드>에도 공개되었다. 또한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중 지하실 1호선과 분당선 주요 역사 승강장 내 PSD(Platform Screen Door)에 SBS올림픽 홍보 및 예고 동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SBS 동계올림픽 특집 프로그램

<동계올림픽 그것이 알고 싶다> 경기 종목과 선수들의 정보를 친숙하게 소개



2월 7일(금) 밤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식 전부터 방송을 시작한 <동계올림픽 그것이 알고 싶다>는 SBS의 인기 시사다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진행자가 직접 프로그램 세트에서 정규방송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하여 관심을 끌었다.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그것이 알고 싶다> 특유의 분위기로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 소개, 팀추월 경기 설명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경기 종목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주어 호평을 얻고 있다.

<힐링캠프> 올림픽의 생생한 현장을 전한다



매회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화제의 인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고급스러운 토크쇼로 시청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이하 힐링캠프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을

파워FM<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공개방송 '장대라대라' 6회 맞아

파워FM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밤10시~12시)에서는 청취자들과 음악으로 뜨겁게 소통하고자 정기적으로 '장대라대라'라는 이름의 소규모 공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장대라대라'는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대단한 라이브'의 줄임말로, 매회 특색 있는 테마와 음악적 다양성으로 기존 라디오 공개방송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2012년 프로그램이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장대라대라'가 방송되었고, 2월 12일(수) 여섯 번째 공개방송이 열렸다. 이제까지 리쌍, 정인, 존박, 알리 등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뮤지션들부터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갤럭시익스프레스, 고상지밴드,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등 최고의 실력을 지녔지만 지상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인디 뮤지션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음악인들이 '장대라대라' 무대를 빛내 주었다. 12일(수) 홍대 근처 롯데카드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 6회 장대라대라'는 '비기너스 파티'로 열



<자기야-백년손님> 기자간담회 개최



목요일 밤 예능프로그램 시청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기야-백년손님>이 1월 27일(월) 저녁 6시 30분에 목동 밀쿠마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는 연출을 맡은 제작본부 예능2C소속 민의식 차장과 출연자인 함익병 의사와 남재현 의사, 제작본부 김일중 아나운서가 참석하여 기획의도와 출연 소감을 밝혔다.



민의식 PD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가구당 자녀가 평균 1~2명밖에 되지 않는 핵가족 시대이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시댁보다 처가와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사위와 장인·장모의 갈등도 표면화되는 추세이다. 저도 가장이자 사위로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런 점에 주목하여 <자기야-백년손님>을 기획했다. 그래서 연예인 위주로 섭외하기보다는 일반인이라도 사위와 장모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분들을 출연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다.

함익병 : 평소 방송 활동에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장모님과 아내를 설득해서 나오게 되었다. 장모님과는 예전부터

SBS 드라마의 명성을 이을 신작 <신의 선물-14일> <쓰리데이즈>

월화드라마 <신의 선물 14일> 화려한 캐스팅으로 기대감 상승



<따뜻한 말 한마디> 후속으로 방송될 <신의 선물-14일>(극본 최란 연출 이동훈)은 말을 잃은 어머니가 딸이 죽기 2주 전으로 돌아간 뒤, 딸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다. 이보영과 조승우가 남녀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고, 떠오르는 아역배우 김유빈이 가세하는 등 환상적인 라인업을 구축한 <신의 선물-14일>은 방송 전부터 뜨거운 기대를 받고 있다.

수목드라마 <쓰리데이즈> SNS를 통한 사전 반응 뜨거워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를 이어갈 수목드라마<쓰리데이즈>(극본 김은희 연출 신경수)는 실존형 대통령을 지키려는 경호원의 활약을 그린 미스터리 서스펜스 멜로드라마로, 박유천, 손헌주, 박하선, 소이연, 윤재문, 장형성, 안길강 등 핫한 스타들과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되어 촬영 중이다. SBS가 2014년 1월 중순까지 소셜 빅데이터 전문 기업인 다음소프트와 함께 SNS를 통해 <쓰리데이즈>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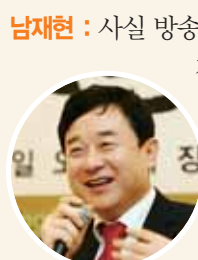
SBS, 세계 최초 3D드라마 <강구이야기> 제작



SBS가 세계 최초로 3D드라마를 선보인다. 3월 중 방송예정인 2부작 드라마 <강구이야기>로, 영덕 강구항을 배경으로 운명적이고 애뜻한 사랑을 펼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는다. 이동욱과 박주미가 남녀주인공에 캐스팅되었고, <미남이시네요>, <드라마의 제왕>의 홍성창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2013년 SBS 극본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백미경 작가가 집필한다.



스스럼없이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달라진 점은 없다.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부모님 세대의 모습을 더욱 속속들이 알게 되어, 그간 무관심했던 모습에 반성하고 예년보다 세심하게 어르신들을 배려하게 되었다.



남재현 : 사실 방송 전에는 처가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여서 명절에도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고, 장인·장모님을 뵈어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자주 찾아뵙다니 장인·장모님의 자식 사랑과 마을 어르신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훈훈한 인심을 느끼게 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나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생활하다가, 순박하고 큰 욕심 없는 시골 어르신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런 면에서 장인·장모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신 <자기야-백년손님> 제작진에게 감사한다.



김일중 : 사실 저는 아직도 장인·장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렵다. 개인적으로 <한밤의 TV연예> 리포터이고 라디오 DJ도 하고 있어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야-백년손님>에 만 나오면 주눅이 든다. 방송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찾아뵈었기 때문에 편하게 지냈지만, 방송에서는 혼자서 처가에 가야 해서 좀 어색하다. 하지만 <자기야-백년손님>시청률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 출연자 중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다.

2013년 SBS 시청자 만족도(ASI) 조사 결과 SBS, 채널 만족도 2년 연속 1위 장르별로는 뉴스와 시사보도, 다큐, 교양에서 만족도 1위 차지

평성전략본부 평성기획팀에서 2013년 12월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실시한 2013년 SBS 시청자 만족도(ASI : Audience Satisfaction Index) 조사 결과 SBS가 채널 만족도에서 2012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SBS는 7.17점을 기록하여 KBS(7.14점)와 MBC(7.04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SBS 8뉴스>는 7.11점으로, 6.86점에 그친 <KBS 9시 뉴스>와 6.68점을 받은 <MBC 뉴스데스크>를 큰 점수차로 누르면서 뉴스 부문 시청자 만족도 1위에 올랐다. 그 외에도 장르별 만족도에서는 시사보도, 다큐멘터리, 교양 부문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별 성과를 살펴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3년 연속 시사보도 부문 1위를, <SBS스페셜>은 다큐멘터리 부문 1위를 했다. <TV 동물농장>과 <궁금한 이야기 Y>는 교양 부문 9개 프로그램 중 각각 1위와 2위에 올랐으며, 드라마 부문에서는 <주군의 태양>이 시청자 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기관 (주)아이디인류(IDIncu)에 의뢰하여 서울 및 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5,676명이 참여하였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패널의 응답을 수집하는 모바일 서베이를 진행했다. 평성기획팀은 2004년부터 매년 시청자만족도를 조사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SBS WiSE에서 S-Cube의 Key Index에서 볼 수 있다.

